

농협·수협 유치 … 농도를 넘어 ‘K-푸드’ 수도로 도약

광주·전남 유치 희망 40개 기관

(단위:명/억원, 2025년·본사 인력 기준)

-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인력 1,331 예산 72,879)
- ▲한국지역난방공사 (2,143·50,829)
- ▲한국환경공단 (3,267·22,090)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55·35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35·20,480)
- ▲한국공항공사 (2,774·13,310)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1,008·13,994)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1·356)
- ▲한국마사회 (2,800·70,985)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97·525)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90·16,408)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81·618)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772·1,202)
- ▲대한체육회 (297·4,690)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력 1,286)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187·65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1·29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16·4,185)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64·481)
- ▲한국어촌어항공단 (249·7,26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91·152)
- ▲(재)한국에너지재단 (50·1,64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90·5,690)
-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40·200)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51·89)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67·139)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49·1,121)
- ▲한국나노기술원 (92·500)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항공안전기술원 (151·596)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34·85)
- ▲예술경영지원센터 (140·114)
- ▲한식진흥원 (49·147)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83·2,185)
- ▲한국문화정보원 (68·226)
- ▲한국영상자료원 (240·151)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68·500)
- ▲한국저작권보호원 (114·241)
- ▲한국장애인개발원 (453·701)

광주시·전남도 유치 희망 리스트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제출한 제2차 공공기관 유치 희망 리스트는 단순한 ‘기관 옮기기’를 넘어서 ‘산업 생태계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

시·도가 확정한 40개 기관 중 우선 유치 대상으로 꼽은 10개 핵심 기관(비10)은 지역의 기존 주력 산업인 농업과 에너지를 고도화하고,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와 항공·물류 산업을 본궤도에 올릴 기폭제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자산이 될 문화관련 공공기관은 후순위에 배치돼 논란도 예상된다.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K식량 기지’ 완성= 전남도는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 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는 금융·유통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단순 생산지 역할에 머물러 왔다.

농협중앙회 유치는 이 같은 계획을 일거에 해소 할 카드로 꼽힌다. 나주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농협중앙회의 거대 자본과 유통망이 더해지면 ‘생산·기반 조성·유통·금융’으로 이어지는 농업 전주기를 러스터가 완성된다.

수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역시 지역 특화 산업과 직결된다.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8%를 차지하는 수산 1번지다. 수협중앙회가 이전할 경우 김, 전복 등 지역 대표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해외 수출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마사회는 전남도가 2029년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는 밀산업 기반 조성 사업의 핵심 퍼즐이다. 호남권에 전무한 경마공원을 유지하고, 장흥의 한국말 산업고등학교 등 교육 기관과 연계하면 레저와 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난방공사·에기평…나주 에너지밸리 ‘화룡점정’=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 이전을 시작으로 에너지 수도의 골격을 갖췄다.

이번에 유치를 추진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 골격에 살을 찌우고 피를 들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가 에너지 R&D(연구개발) 예산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두뇌 기관이다. 이 기관이 오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인재 양성)-에너지기술평가원(기술 기획·평가)-한전

한전·난방공사 결합해

에너지 밸리 완성

AI·데이터·항공 등

지역 특화 산업 맞춤형 유치

지역 미래 100년 ‘승부수’

(사업화)’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산업의 선순환 고리가 완성된다.

또한 전남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444GW로 전국 1위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집단 에너지 공급 노하우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전남의 환경이 결합하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 데이터진흥원·산업기술진흥원… 광주 AI·모

빌리티 ‘두뇌’ 장착= 광주시는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를 소프트웨어와 미래 모빌리티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치는 광주 표방하는 ‘AI 대표 도시’의 마지막 조각이다. 광주 첨단지구에 들어선 국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종결하는 진흥원이 더해지면 광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심장부로 거듭나게 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광주의 미래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이 필수적이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국토교통 분야의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관의 R&D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은 광주 제조업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항공사·환경공단… 지역 협력= 지역의 해묵은 과제 해결과 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적 유

지도 눈에 띈다.

한국공항공사 유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기폭제다. 공항공사가 무안으로 이전하면 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항공기 정비(MRO) 산업단지 조성과 항공 물류 시스템 구축 등 공항 배후 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수 있다.

또한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통합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은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철강 집적지이자 온실가스 최대 배출 지역이다.

한국환경공단 유치는 이 지역을 탄소중립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환경공단의 기술력과 인증 시스템이 현장에 투입되면, 노후 산단의 친환경 전환과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2028 G20 정상회의’ 개최 도전

김영록 지사 “전남광주 도약 계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8년 국내 유치가 확정된 ‘G20’(Gruppo of 20) 개최 도전을 공식화 했다.

G20 유치로 오는 7월 출범이 가시화되는 전남 광주특별시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G20은 전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담 자리로 매년 개최장을 달리해 열린다. 지난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 20회 회의가 개최됐으며, 제 23회 개최로 한국이 결정됐다.

김영록 지사는 11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8 G20 정상회의 유치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세계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G20 유치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인프라에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이번 G20 정상회의 만큼은 지방도시에서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 유치를 선언한 것이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특별시의 G20 유치 당위

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특별시는 글로벌 어젠다의 해법을 제시할 준비가 된 지역”이라며 ▲5·18 등 민주주의를 실천해온 도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최전선 ▲아시아·태평양 최대 AI 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강점을 G20 개최의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은 G20과 같은 국제행사 개최 경험에 없는데 데다 부산 등 대도시와 견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는데, 김 지사는 MICE 시설인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여수의 숙박·관광 인프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외교 공간 등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민통합위 “국민 92.4%, 보수·진보 갈등 심각하게 인식”

갤럽 통해 7천명 조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합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2%p다.

우선 통합위는 5대 사회갈등을 보수·진보 갈등, 소득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등, 젠더 간 갈등으로 나눈 뒤 답변자에게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 중 보수·진보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밝힌 답변자가 9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소득 계층 간 갈등(77.3%), 세대 간 갈등(71.8%), 지역 간 갈등(69.5%) 순이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